

중국서 600년만에 모습 드러낸 고려선박

韓-中 해양교류史 연구 획기적 자료

중국 산둥성(山東省) 평라이시(蓬萊市) 등주항에서 발굴된 고려선박 3척 가운데 2척이 최근 원일 범초의 14세기 중후반 고려의 배로 밝혀져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봉래 3호선’(선체 잔존길이 17.1m, 폭 6.2m)은 3열의 저판(底板·밑널) 형식을 갖췄다. 봉래 4호선(길이 4.8m, 폭 1.96m)은 저판·외판 등 4편의 선체 조각이 남아있었고 돛대 자리가 ‘완도선’ ‘달리도선’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한선(韓船)의 구조를 하고 있다.

전통 韓船구조로 역대 최장 17.1m

청자 등 무역품 싣고다 침몰한 듯

‘봉래 3호선’(선체 잔존길이 17.1m, 폭 6.2m)은 3열의 저판(底板·밑널) 형식을 갖췄다. 봉래 4호선(길이 4.8m, 폭 1.96m)은 저판·외판 등 4편의 선체 조각이 남아있었고 돛대 자리가 ‘완도선’ ‘달리도선’ 등과 같은 전통적인 한선(韓船)의 구조를 하고 있다.

이 3호선에서는 고려청자파연주문완(高麗靑瓷水波聯珠紋碗)과 고려청자국화관문완(高麗靑瓷菊花瓣紋碗) 등 선박의 국적이 고려임을 확실하게 하는 고려청자편들이 발견됐다.

봉래선이 알려진 것은 중국 산둥성문물고고연구소 등이 선박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김성범 국립해양유물전시관장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뢰함으로써 국내

에 알려지게 됐다. 고려선박이 발견된 봉래수성(蓬萊水城)이란 곳은 산둥반도 최북단으로 연타시(煙臺市) 서쪽의 평라이시에 위치하는 항구다.

‘봉래선’은 14세기 중·후반 무렵, 고려의 어느 항구를 떠나 등주항으로 입항하려다가 난파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선박 분야 전문가인 이원익(72) 인하대 명예교수는 “이번 ‘봉래선’은 현재 남아있는 선박 잔해만으로도 길이가 20m 이상이며, 원래는 25m 이상이었다고 생각된다”면서 “멀리는 신라 말 장보고가 선박으로 서해를 왕래했다고 하지만, 그런 실물 자료가 우리 앞에 출현했다는 점에서 봉래선 발견은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용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중점’ 안보이는 광주시내버스 노사 협상

임금 타결해도 퇴직금 정산 등 ‘산넘어 산’

노조 오늘 파업 찬반투표

광주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계속하면서 노조가 29일 쟁의 찬반투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조는 30일까지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이 결정될 경우 9월1일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쟁점은 임금 인상 폭. 하지만, 임금 협상안이 타결되더라도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체불 임금 정리 ▲구조조정 등 합의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팽팽한 줄다리기 = 버스 노사는 28일 광주시 협상단을 배제하고 만난 자리에서도 이렇듯 타협안은 내놓

지 못했다. 지난 19일 가진 노·사·정 회의에서 수정제외한 총액 대비 6% (노측), 5%인상(사측)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했다.

노측은 예초 10.1% 인상에서 6%로 낮췄기 때문에 더 이상 양보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근무일수를 월 24일에서 22일로 줄이기 때문에 시급으로는 18% 이상 인상하게 되는 셈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해 결렬됐다.

◇퇴직금 정산 ‘복병’으로 등장 = 광주시는 준공영제 도입에 앞서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고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에선 7월 말 현재 52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380억원의 퇴직금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도 상당수 노조원이 퇴직금 정산에 반대하는데다, 찬성하더라도 일괄 지급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아 진통이 예상된다.

구조조정 추진도 쟁점이 되고 있다. 노조에선 2천100명의 기사 중 480명에 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와 사측은 준공영제 성공을 위해서는 감차와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단계적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준공영제 도입은 시내버스 경영안정화의 첫걸음”이라며 “노사 모두 준공영제에 앞서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경영구조를 개선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정·채희종기자 chae@

수능 오늘부터 원서접수

다음달 13일까지

오는 11월16일 치러질 2007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2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된다.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출신고등학교에서, 졸업자 중 다른 시험지구 지원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각각 접수해야 한다. 장기 입원환자·지원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각각 접수해야 한다. 장기 입원환자·지원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에 접수하면 된다.

만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이거나 수험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거주자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이 경우 서약서와 관련 증빙서류, 지원자와 대리접수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한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은 자연계 지원자의 경우에는 수리 ‘가형과 나’형에 대한 선택 여부이며, 사회탐구 및 과학탐구영역에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 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주월동 ‘호반 베르디움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주민 30여 명이 28일 오후 인근 호반 베르디움 2차 공사현장 앞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바위 날벼락’ 아파트공사 중단 촉구

주월동 호반 베르디움 1차 주민

“주월동 호반 베르디움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장 이명현·이하 대표회) 소속 주민 30여 명은 28일 광주시 남구 주월동 호반 베르디움 2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굉음과 발파작업 도중 날라온 돌(본보 8월28일자 7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대표회의는 “돌이 만약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떨어졌다면 사망사고가 지 발생할 수 있었던 아찔한 순간이었

다”면서 “가뜩이나 공사 소음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돌 폭탄’까지 날아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반 베르디움 2차 아파트는 38평·43평 296세대로 오는 2008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1차 아파트와는 5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이 구경에 집단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광주 남부경찰은 29일 발파작업을 지휘한 발파 책임자를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수사 결과에 따라 건설사 관계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방침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조연하 前 국회부의장 별세

제5대 민의원 8대, 12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연하(趙連夏) 전 국회 부의장이 28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2세.

승주 출신인 고인은 1960년 민주당 소속으로 제5대 민의원에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71년 8대 국회의원과 85년 1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회 부

의장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아들인 조계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과 사위인 김만 DMD 감사, 이선택 한화그룹 상무, 김재민 서안국제운송 이사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 아산병원 연락처(02)3010-2265. /임동욱기자 tuim@

Weather forecast for August 29th, including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temperatures and weather conditions for various regions.

광주 교차로 차량흐름 10~30초 빨라져

신호등 650개 재정비

광주시내 도심 차량 흐름이 빨라질 전망이다. 2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시내 650개 교차로 신호등에 대해 신호주기 재정비 작업을 실시, 교차로 신호등 대기시간을 10~30초씩 낮

차했다. 신호대기 시간이 가장 긴 광역역 광장 등 4곳은 출퇴근 시간대와 낮시간대 대기시간을 240초에서 210초로 낮췄고, 백운광장 등 11곳은 기존 신호대기 시간보다 20초를, 운천로 등 35곳과 금남로 등 70곳은 10초를 하향 조정했다.

전남경찰청 이우진 교통계장은 “지난 5월부터 금남로 등 시내 63곳의 교차로에서 실시한 신호주기 하향 조정 시범운영 결과 사망률은 13.8%,

중단 중앙로는 8.25%, 필문로는 3.53%의 차량대기 시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광주시 우수기관 선정

광주시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28일 환경부가 지난 7월부터 1년 동안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854대의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토록 해 60%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Local business directory listing various serv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different companies.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machinery, featuring images of various tractors and equipment, along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Han-A-Sung.

Advertisement for Airpass, a service for improving indoor air quality, featuring images of modern buildings and air purifiers.